

# 고성신협 거진지점 전화사기 피해 막아

## “여기 경찰서인데, 아들 사고 해결하려니 송금하라” ... 정달수 지점장 “고객 재산 안전보장”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이 끊임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금융의 대표주자인 고성신협 거진지점(지점장 정달수)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금융사기피해를 막아냈다.

거진읍에 사는 최모씨(76세)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경 고성신협 거진지점 창구를 방문해 정기예탁 1천만원 증도해지 요구를 했다. 남편 병원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1천만원 중 500만원을 송금해 달라며 창구직원 김지영씨에게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하얀봉투를 내밀었다.

직원 김씨는 예금주가 누구냐고 물었고, 최모씨는 아는 사람이라고만 얘기하면서 병원비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 옆좌석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정달수 지점장은 돈받을 사람과 어떤 사이이며 어디에 있고, 전화연락은 누가 받았고, 아버지 때문에 빌린 병원비를 갚는 거라면 아버지께서 알고 계

시냐고 연신 물었다.

정달수 지점장은 최모씨가 횡설수설하는데, 송금받을 예금주는 서울에 있다고 했는데 흰 봉투에 적힌 054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송금계좌번호의 어음교환소는 김해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그는 “요즘 사기전화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그러니 통장과 도장은 맡겨두시고 댁에 가서서 아버님과 자녀에게 확인하세요”라고 말하곤 택시를 불러 최모씨를 우선 집으로 보냈다.

이후 최모씨는 아들과 통화한 후 사기전화였다는 걸 알았고 경찰과 함께 지점을 방문했다.

최모씨에 따르면 경찰서라며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공직에 있는 걸 알고 “금전적인 사고가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급히 송금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 특히 “타인이 알면 아들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면 창구직원에게 아무 말 하지 말

라”고 했다.

최모씨는 이날 신협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은행에서 1천만원의 사기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2차로 고성신협 거진지점을 방문해 500만원을 송금하려다 정달수 지점장과 창구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가까스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거진지점을 방문한 경찰과 최모씨의 아들은 거진지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더 커질 수 있었던 피해를 방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고성신협 거진지점은 지난해 8월에도 평소 인출금액이 크지 않았던 임모씨(70세)가 700만원 전액인출요구와 함께 텔레뱅킹 신청을 요구하자, 이상하게 여겨 확인 결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고성신협 거진지점 직원들이 발빠른 대처로 전화사기피해를 막아냈다. 사진 왼쪽은 정달수 지점장 오른쪽은 창구직원 김지영씨.

있었다.

고성신협 정달수 거진지점장은 “우리 신협을 이용하는 주거례 고객들 중 어르신들이 많은데 전화사기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어 직원들과 더불어 세심한 주의 관찰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피해사기방지에 힘을 기울여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 “어려운 농업환경 슬기롭게 극복하자”

##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 ... 고성 특수미 밥맛 시식

제16회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가 황종국 군수를 비롯해 고성군 농업인단체, 고성군의회, 농·축협, 산림조합, 농업관련단체 등 3,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고성종합체육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개회식, 시상식,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의 기본행사와 고성 특수미 밥맛 및 향토개발요리 시식, 농촌여성 작품전시, 신기종 농업기계전시 등의 전시행사 그리고 농촌노인 게이트볼 대회의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농업인으로 선정돼 군수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토성면 용촌2리 김종규, 거진읍 봉평리 임종혁, 거진읍 반암리 김재욱, 간성읍 광산 2리 이정수, 죽왕면 구성리 조나진 등이

다. 농촌발전유공에 기여해 국회의원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간성읍 여천1리 임봉훈, 죽왕면 삼포2리



지난 15일 열린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황종국 고성군수가 표창 수상자들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송용석, 간성읍 교동리 강순자, 토성면 용촌1리 한영선 등이다.

또 모범농업인으로 선정돼 군의회 의장 표창을 받은 수상자는 간성읍 동호2리 이철우, 토성면 학야2리 배일성, 토성면 성대1리 이옥자, 죽왕면 아촌리 김환선 등이다.

이밖에도 농업인단체에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부장 박상기, 고성군 축협 조합장 전상복, 고성군 산림조합 조합장 김일홍,

금강농협 조합장 최학철, 거진농협 조합장 김정만, 토성농협 조합장 김명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한 해동안 가꿔온 수확의 보람을 함께하면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지식농업 정보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며 “서로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농업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했다.

원광연 기자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농기계교육관에서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농기계 구입 수요자 및 교육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조작 및 정비 수리기술, 현지포장 작업

기 사용요령, 신기종개발로 인한 역할 설명, 영농작업중 고장발생시 응급처치요령, 농업기계 장기보관 및 안전수칙요령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에 앞서 탑동리, 신안리, 흘리, 장신리 등을 찾아 농기계순회수리사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원광연 기자

## 토성농협 화재조합원에 격려금 전달



토성농협(조합장 김명환)은 지난 18일 화재(8일)로 집이 전소돼 마을회관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함용호 조합원에게 100만원의 재해지원금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